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에서 11. 16 ~ 12. 9까지

# 유네스코 창의도시전 개최



서울시가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로 지정된 지 햇수로 2년이 되는 올 가을, 쉽게 만나기 어려운 전시가 시민을 찾아온다. 디자인, 문화, 영화, 음악 등 각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산과 잠재력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 유네스코 창의도시전을 만나보자.

## 전세계 29개 창의도시 배낭여행

11월 16일부터 12월 9일까지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된 전세계 29개 도시가 참여한 '유네스코 창의도시전'이 열린다.

'유네스코 창의도시전'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29개 창의도시들의 문화 콘텐츠를 한 자리에 모으는 행사로, 전시를 보고 나오면 마치 29개 도시를 여행한 것과 같은 정보와 재미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전 세계 29개 창의도시 배낭여행'이라는 부제를 붙였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디자인 도시 존으로, 세계 유명 도시를 대표하는 디자인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베를린 교통의 상징 암펠만, 공공 자전거 시스템에서 시작해 이제는 유럽과 미주 여러 도시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몬트리올의 빅시, 특이한 외형 때문에 한 번 보면 절대로 잊지 못하는 그라츠의 '쿤스트 하우스' 등을 주요 모티프로 사용한 디자인 제품들에서는 단순히 세련된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 도시의 스토리와 디자인을 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읽어 낼 수 있다.



## 다양한 서울의 디자인 노력 '한눈에'

서울섹션에서는 '디자인서울'의 현재와 미래 비전을 만날 수 있다. 서울의 디자인자산, 서울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해치', 서울색, 서울서체 그리고 그린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등의 서울의 배려하는 디자인이 실물 전시품과 함께 전시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세계 도시를 대표하는 작가와 그들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문학도시 존'이 그곳으로, 세계 각국의 문학도시에서 직접 보내온 책과 작가 인터뷰 등을 담은 영상물도 함께 상영돼 작가들이 이야기를 만드는 환경과 작품으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 직접 확인 할 수 있다.



영화 상영관이 마련된 '영화 도시 존'에서는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영화 도시, 브래드퍼드와 시드니를 만날 수 있다. 브래드퍼드는 칸이나 베니스처럼 대규모 영화제를 개최하지는 않지만, 영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참여로 완성되는 프로젝트를 계속 하고 있다.

## 영화, 음악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만나

블록버스터 영화를 주로 만드는 시드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첨단 도시 시설이 공존하는 도시인 까닭에 매트릭스나 미션 임파서블과 같은 대규모의 영화가 촬영된 곳이다.

음악 도시 존에서는 취향에 따라 마음껏 음악을 골라 들을 수 있다. 클래식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활동무대였던 볼로냐, 대규모 극장뿐만 아니라 클럽과 펍에서도 언제나 음악이 흘러나오는 글래스고 등의 도시가 들려주는 음악 이야기는 거의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다.



동대문 역사 문화 공원

한편, 이번 전시가 열리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은 역사와 디자인을 아우르는 서울의 차세대 랜드마크로 디자인 도시 서울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전시 장소라는 평을 받고 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전'과 함께 DDP 홍보관을 둘러보면 전시의 연장선상에서 디자인 창의도시 서울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 ● 문의 6361-3412

## 창의도시 컨퍼런스 서울 2011 열려

2011년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서울 봉은사 건너편에 위치한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컨퍼런스 서울 2011'이 개최된다.

이번 컨퍼런스는 서울특별시와 유네스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주최하는 것으로, 창의도시로 지정된 19개국 29개 도시의 시장단과 대표단을 비롯,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관심이 있는 도시와 국내외 창의 분야 전문가, 관련 학과 대학생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 컨퍼런스는 '창의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주제로 열린다.

컨퍼런스 첫날에는 개회식과 기조연설 및 특별·전체 세션 등이 진행되고, 둘째날에는 시장단라운드테이블과 분과세션 등이 개최 된다.

컨퍼런스 프로그램은 모두 일반인 참가가 가능하다. 10월 31일까지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서울 홈페이지(www.unescoseoul.org)를 통해 온라인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 문의 6361-3409

# 신호등 축제

## SEoul LANTERN FESTIVAL 2011

2011. 11. 4.(금) - 20.(일)  
청계천 (청계광장 ~ 관수교)

주최

서울특별시

주관

서울관광마케팅

협찬

우리은행

문의 120

\*혼잡한 주말보다는 평일을 이용하여 관람하시기 바랍니다.